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실시

지역 익산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지난 26일 왕궁저수지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구현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왕궁 저수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잡초 제거 및 경관 정비 활동을 병행해 지역 환경 개선에

힘썼다. 특히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각종 폐자재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수질 오염 예방과 경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도모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 기관이 앞장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김태용 익산지사장은 “청정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통해 저수지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 구축과 ESG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익산=임규창 기자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URL 복사

프린트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が必要です.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